

‘수능 D-9’ 모의평가 재점검·코로나19 주의를

긴장감 내려놓고 지금까지 틀렸던 문제 원인 명확하게 확인해야 책상 위 임시 가림막 두고 문제 풀이 연습 ... 돌발상황에 대비를

다음 달 3일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수능)을 1주일 여 남겨두고 임시 전문가들은 지난 모의고사를 재점검하고, 취약점을 최종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3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수능까지 남은 며칠간은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풀면서 틀렸던 문제를 두고 원인 진단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지금까지 틀렸던 문제의 원인을 마지막까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중위권 학생은 중간 난이도 문제에서 얼마 만큼 실수를 줄일지가 관건인 만큼 모의고사에서

반복되는 실수를 최종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상위권 학생은 틀렸던 고난도 문제를 다시 풀어 보면서 막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위권 학생은 문제를 맞출 가능성이 높은 탐구영역 재점검에 주력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된 6월·9월 모의평가를 다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당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 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다.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주제와 유형을 다시 번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도표, 그래프, 제시문 등이 포함된 신유형 문제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한다.

수능 연계 EBS 교재를 남은 기간 다시 훑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EBS 교재 지문 자체를 암기하기보다 지문과 문제를 분석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 출제 경향에 비추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마무리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지금부터는 매일 수능 시간표대로 실전 연습과 답안지 작성을 하는 훈련까지 꼼꼼히 해야 한다.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도 되도록 많이 해야 한다. 풀리지 않는 문제는 건너뛰는 습관도 길러야 한다.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 격정과 불안이 커지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불안한 마음에 수능 며칠 전부터 밤을 새워 공부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남 소장은 “낮에 집중하지 못하는 패턴이 몸에 익숙해지면 실전에서도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라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관련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다.

수험생 학부모도 자녀가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책상 가림막도 적응해야 한다.

임 대표는 “마무리 학습하면서 임시 가림막을 책상 위에 두고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마지막 연습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장 내에서도 여러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마지막 준비기간 동안 여러 돌발상황이 일어났을 때 냉정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원칙을 설정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모두가 빛나는 지속가능 교육 전남교육청, 4대 역점과제 추진

전남교육청이 ‘모두가 빛나는 지속가능한 전남 미래교육’을 목표로 2021년 전남교육 4대 역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교육 2021 역점과제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혁신 ▲지속가능한 미래학교 육성 ▲조직문화와 행정 혁신이다.

도 교육청은 기존 전남교육 5대 교육지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코로나시대 교육대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전남교육 2021 역점과제를 제시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난 학습격차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정규 교사 40명을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운영해 초기 문해력과 수해력 향상을 지원한다.

전남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전남기초학력지원센터를 구축, 학습결손과 기초학력 지원체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혁신’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느낀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다. 이를 통해 온라인 학습지원시스템 구축, 블렌디드 러닝 활성화,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이뤄 온라인 수업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미래학교 육성’으로 학령인구 감소·지역소멸의 위기를 안고 있는 전남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혁신학교의 성과와 저력을 바탕으로 공교육을 혁신하는 거점으로 전남의 미래학교를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미래학교의 큰 틀 속에서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학생군사교육단 국방부평가 ‘최고등급’

교육훈련지원 등 역량 인정 “장교 후보생 육성에 최선”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학생군사교육단은 국방부 ‘2020년도 학군단 설치대학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학군단 설치대학 평가는 국방부에서 학군단이 설치된 전국 122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1회 평가를 시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군단 존폐 및 후보생 정원 평가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대는 학군단 제도와 우수후보생 육성, 교육훈련지원, 교육시설 등에서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았다.

광주대 학생군사교육단 박동철 단장은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제한사항이 많았지만, 철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면서 “광주대는 학군단 설치대학 평가를 통해 매년 국방부로부터 정원을 추가 할당받아 후보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훌륭한 장교 후보생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대는 입단 후보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액 지급과 생활관 입사 등의 혜택으로 우수후보생 모집과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명(남자 125명·여자 7명)의 학군장교를 배출했으며, ‘2019년도 학군사관후보생(ROTC) 선발시험’에서는 호남지역 최다 합격 규모인 11명의 여자 학군사관후보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2020년 입관종합평가(체력)’에서는 모든 후보생이 ‘통과’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큰 장교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채희중 기자 chae@

광주교대-부설초교 공동수업 발표회 개최

교수·교원·학생 등 72명 참여 미래교육 체계 구축의 장

광주교육대학교(총장 최도성)가 지난 19일 ‘2020 대학-부초 공동수업 프로그램 결과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이번 발표회는 교육대학 교수와 광주부설초등학교 교사, 예비교사인 재학생 등 협업과 소통을 통한 ‘미래교육체계 구축의 장’ 마련을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앞서 광주교대에서는 대학 교과별 12개 심화학과 전공에 따라 교과별 교수 1명, 광주부초 교원 2명, 재학생 3-4명 등 총 72명이 참여한 ‘2020 대학-부초 공동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대학-부초 교류 공동수업 프로그램 진단’ (국어교육과 최원오 교수), ‘2020비대면 수업의 발자취’ (광주부설초 구대현 교사), ‘사회과교육과 학생 지도 사례’ (광주부설초 유정훈 교사), ‘창의융합교육(무한상상실, 메이커교육) 사례’ (광주부설초 정상훈 교사), ‘공동수업 프로그램 참여 학생 소감 발표’ (사회과교육과 이소연 학생)가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한 교육연구원장 김덕진 교수는 “대학과 교육 현장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한 온라인 프로그램 및 임용 지도 프로그램 개발에 의미있는 소통의 자리였다”며 “목포부설초에서 주관하는 내년 프로그램은 더 알차게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입주기업 협업·상생 합동워크숍 호남대창업보육센터

호남대창업보육센터(센터장 김성수)는 최근 이틀동안 남원 스위트 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5개 대학(광주대, 남부대, 동강대, 동신대, 호남대) 공동 주관으로 입주기업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합동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수를 사전에 제한해 5개 대학 입주기업 대표 등 약 50명이 참석했으며, 입주기업의 역량강화 교육 및 분야별 멘토링데이 개최를 통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5개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 및 지식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협업 및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각 분야별 전문가위원을 통한 정책 지원, 세무·회계, 마케팅, 특허, 자금조달 관련 멘토링을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워크숍 프로그램 내용에 만족감을 표실했다.

5개 대학 창업보육센터 매니저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창업기업 대표들에게 창업보육센터가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워크숍 및 멘토링데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 作 名 作 名 作

광화문父子작명가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 당시白山 선생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作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